영어어문교육 *제28권* 2호 2022년 여름
https://doi.org/10.35828/etak.2022.28.2.127

브이로그 활용 수업에서 말하기 전 단계 쓰기 활동이 대학생들의 영어 말하기 능력에 미치는 효과

진승희
(이화여자대학교)

Jin, Seung-Hee (2022). The effects of writing as a pre-speaking activity in a social media-integrated speaking class on college students' speaking skills.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Teaching, 28*(2), 127-145.

The present study aims to explore the effects of implementing writing as a pre-speaking activity in a social media-integrated speaking class on Korean EFL university learners' speaking skills. It also tries to examine their attitudes and perceptions toward this new instruction. This study was conducted with fifty Korean university students during one semester. The participants were assigned to an experimental group (*n*=25) who engaged in writing as a pre-speaking activity in a social-media integrated speaking class and a control group (*n*=25) who received a traditional speaking instruction. To collect data, a pre- and post-speaking test and a survey on students' attitudes and perceptions were implemented. A survey measured the participants' overall learning experiences and affective attitude such as motivation, interest, confidence, and anxiety. The quantitative data was analyzed by *t*-tests while the qualitative data was analyzed by a coding procedure. The results presented that using writing as a pre-speaking activity has a positive effect on the students' speaking proficiency and this new instruction is more effective than a traditional classroom. This study suggests that integrating wring as a pre-speaking activity into a speaking course can be used as an effective teaching approach to improving speaking skills.

[writing as a pre-speaking activity/speaking skills/social media-integrated language learning, 말하기 전 단계 쓰기 활동/말하기 능력/소셜미디어 기반 영어 학습]

I. 서론

요즘과 같은 국제화 시대는 학생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영어 의사소통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영어 의사소통능력의 핵심인 표현 기능에 해당하는 영어 말하기와 쓰기 능력의 신장이 필수적인 과제이다. 그러나 영어 교육 전반을 살펴보았을 때 의사소통의 네 가지 기능 중 말하기, 쓰기인 표현 기능 신장을 위한 노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신수정, 2018). 예를 들면, 중 · 고등학교의 경우 대학 입시에 대비하기 위해 말하기와 쓰기 활동 보다는 여전히 읽기와 듣기에 치중한 학습이 이루어지고 있어 전반적으로 반쪽자리 영어 교육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강민지, 2013; 이혜수, 2017). 이에 대학 영어 교육에서는 영어 말하기와 쓰기 능력 향상에 더 관심을 가지고 이를 신장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교수 및 학습 방법을 다양하게 제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의사소통능력에서 표현 능력인 말하기와 쓰기는 각각 구두 언어와 문자 언어라는 차이점이 있으나 의사소통을 목적으로 청자 혹은 독자에게 의미를 전달하는 언어 능력이란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Weissberg, 2006). 말하기와 쓰기 능력은 서로 긴밀히 연관되어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상호작용을 통해 발달될 수 있다고 논의된다(고윤힐, 2017; 황성근, 2009). 말하기 수업에 쓰기를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학습하는 방법은 학생들이 쓰기 과정을 통해 미리 말할 내용을 충분한 사고를 통해 논리적, 체계적으로 구성할 수 있어 말하기의 정확성에 도움이 되며 고급 표현을 사용한다는 장점이 있다(고윤힐, 2017; Cumming, 1990). 또한 말하기와 쓰기의 연계 교육은 학생들의 통합적 사고를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내용을 논리적으로 구성하여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 말하기 실력 발달을 위한 기본 토대를 마련해줄 수 있다(황성근, 2009). 이처럼 말하기와 쓰기를 통합적으로 제시한 수업은 학습자들이 글쓰기 과정을 통해 사고의 표현을 설득력 있게 논리적으로 담아내는 연습을 할 수 있어 말하기 능력 발달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으로 현재 대학 영어 교육에서 이러한 말하기와 쓰기 기능의 적절한 연계를 통한 통합적인 학습의 제시가 필요하다.

그러나 쓰기가 말하기 학습에 가지는 장점에 대한 논의에도 불구하고 말하기 전 단계에 말하기와 관련된 쓰기 활동을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교수하고 그 실질적인 효과를 탐구한 연구는 아직까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동안 연구들은 주로 단독적으로 이뤄진 쓰기 활동이 말하기 능력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로 이루어졌다(안수연, 2002; 장미화 & 이화자, 2019; 정양수, 2005). 이처럼 현재 영어 교육분야에 말하기와 쓰기를 통합적으로 설계한 수업과 관련된 정보가 부족하고 그동안의 연구가 주제나 방법 면에서 매우 제한적으로 나타나 관련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영어 말하기 수업을 실시하여 말하기 전 단계에 관련 쓰기 활동을 연계하였고 이러한 새로운 접근 방식이 학습자들의 영어 말하기 능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또한 학습자들의 인식과 태도에 대해 조사하여 이러한 수업 방법의 교육적 적용 가능성을 탐구해보고자 하였다. 현재 소셜미디어는 젊은 세대들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의사소통방식으로 영어 학습에 이를 교육적 도구로 활용한 연구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김병선, 2020; 문은주 & 김재경, 2011; 이현경, 2017; 허선영 & 손승희, 2020). 소셜미디어는 목표어인 영어를 쓰는 전 세계의 다양한 사람들과 온라인 상에서 쉽게 연결되어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시하기에 한국과 같이 제한된 EFL 환경의 학습자들에게 의미 있는 의사소통경험과 상호작용 기회를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영어 말하기 학습에 가지는 장점이 많다. 현재까지 말하기와 쓰기를 통합적으로 제시한 관련 연구는 모두 오프라인 교실에서 이루어진 수업이었다(고윤힐, 2017; 김지선, 2014; 이윤나 & 윤현숙, 2010). 따라서 본 연구는 소셜미디어 활용 말하기 수업에서 쓰기 학습을 말하기 전 단계에 연계해 그 효과를 살펴본 것으로 온라인 학습이 병행된 블렌디드 러닝(blended learning) 환경에서 이러한 말하기 전 쓰기 활동이 말하기 학습에 가지는 효과성을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 있는 시도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II. 이론적 배경

1. 말하기 전 쓰기 활동이 영어 말하기 능력에 미치는 영향

말하기 수업은 크게 세 가지 단계로 말하기 전(pre-speaking), 말하기 동안(while-speaking), 말하기 후(post-speaking) 단계로 나눌 수 있다(고윤힐, 2017). 첫 번째 단계인 말하기 전 단계는 학생들의 영어 발화 전 말하기 주제에 대해 준비하는 과정으로 핵심 어휘, 문법 학습, 주제에 대한 브레인스토밍, 주제 관련 독해 혹은 토의하기 등을 할 수 있다. 학생들이 자신들이 말할 내용에 대해 준비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주는 것이 좋고 준비활동(warm-up)이 이 단계에서 행해질 수 있다. 교수자는 명확한 수업 지침과 계획을 통해 말하기 전 단계를 진행해야 하며 학생들이 자신들이 하고자 하는 말을 영어로 준비할 수 있는 과제를 제시해야한다. 두 번째 단계는 말하기 동안 단계로 학생들이 본격적으로 실제 영어를 발화하며 주제와 관련된 말하기 과제에 참여하며 말하기 연습을 하는 단계이다. 말하기 과제는 개별, 짝 활동, 그룹 활동으로 진행될 수 있고 학생들이 영어 말하기를 연습할 수 있도록 구성하며 주로 역할극, 게임, 스토리텔링, 인터뷰, 정보 차 활동, 토론 등이 활용된다. 교수자는 말하기 동안 단계에서 학생들의 말하기 수행을 관찰하고 과제 수행에 어려움을 느끼는 학생들을 도와줄 수 있어야 한다. 마지막 단계는 말하기 후 단계로 학생들이 전 단계에서 학습한 내용을 정리하고 학습 내용이 의미 있을 수 있는 과제를 진행할 수 있다. 교수자는 이 단계에서 학생들 말하기 수행에서 전반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중요한 오류에 대해 수정 피드백 혹은 간단한 수업을 실시할 수 있다.

그동안의 연구에서 말하기 전 단계 활동이 학생들의 말하기 실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나타났다(고윤힐, 2017; 이윤나 & 윤현숙, 2010; Dabiri & Gilakjani, 2019; Gaillard, 2013). Dabiri와 Gilakjani(2019)의 연구는 중급 수준의 EFL 학습자를 대

상으로 말하기 전 단계 활동이 말하기 실력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오는지 탐구하였다. 말하기 전 단계 활동으로 말하기 주제와 관련된 영화, 만화, 다큐멘터리 등을 보거나 문법, 말하기 전략 등을 학습하거나 주제와 관련된 일화, 실제 경험, 시각 자료 등을 통해 말하기 주제에 대해 학생들이 다양한 의견과 생각을 나누며 말할 내용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연구 결과, 말하기 전 단계 활동을 실시한 실험집단이 말하기 전 단계 활동이 없었던 통제집단보다 영어 말하기 실력 발달에 더 효과적이었음이 나타났다. 비슷한 결과로 Gaillard(2013)의 연구는 말하기 전 단계에 학습자들이 말하기 과제에 대해 준비하고 계획할 수 있도록 하였고 그 결과 미리 계획을 한 실험 집단이 통제집단에 비해 말하기 실력의 유창성, 정확성, 복잡성이 발달하였고 말하기 수행의 질과 양 모두에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

또한 말하기 전 단계 활동이 학생들의 정의적 영역인 말하기 자신감 발달(Skardal, 2015)과 불안감(anxiety) 해소(김지선, 2014)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Skardal(2015)의 연구는 노르웨이 EFL 학습자를 대상으로 말하기 전 활동으로 제약없이 자유롭게 영어로 마음껏 말해보는 영어 모드(The English mode, TEM)를 실시하여 이러한 시도가 학습자들의 말하기 자신감 발달에 효과적으로 나타났음을 입증하였다. 또한 김지선(2014)의 연구는 한국 대학생 EFL 학습자에게 말하기 전 활동으로 영작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이러한 말하기 전 쓰기 활동이 학습자들의 말하기 불안감 감소에 효과적이었고 영어 말하기 실력에도 긍정적 결과를 나타냈다.

이처럼 여러 연구에서 말하기 전 단계 활동의 장점들이 논의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영어 말하기 수업 설계 시 말하기 전 단계 활동이 고려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말하기 전 단계에 쓰기 활동을 실시하고 그와 관련된 영어 말하기 활동을 연계해 쓰기 · 말하기를 통합적 교수한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윤나와 윤현숙(2010)은 질적 연구 방법을 실시하여 한국 대학 EFL 학습에게 말하기 전 단계 활동으로 말하기 주제에 대해 30분 동안 쓰기 활동을 실시하고 영어 토론 및 구두 발표를 하게 하였다. 그 결과, 말하기 전 쓰기 활동은 학생들이 스스로 오류 수정을 통해 발화를 완성시키고 많은 관사를 사용하며 발화량이 많아지는 등 학습자들의 말하기 실력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나타났다. 분석적 척도로 평가 시 말하기 전 쓰기 집단의 말하기의 정확성, 유창성이 통제집단보다 발달이 더 크게 나타났다. 김지선(2014)은 대학 교양영어 수업에 말하기 활동으로 모둠별 토의활동을 실시하였고 말하기 전 단계에 모둠별로 10분간 토의 주제에 대한 브레인스토밍을 하고 발표준비를 위해 개별적으로 쓰기 활동을 실시하였다. 영작 후 말하기 활동으로 3-4분간 자신의 의견에 대한 개별 발표를 하게 하였다. 연구 결과, 학습자들의 말하기 능력 향상과 말하기 불안 감소에 말하기 전 쓰기 활동이 매우 효과적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고윤힐(2017)은 대학 교양영어 토익 스피킹 수업에서 사전 과업 계획으로 영어 쓰기 활동과 말하기 녹음 활동을 각각 실시하고 이러한 말하기 전 사전 활동들이 학습자들의 말하기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효과적인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말하기 전 쓰기 활동이 녹음 활동과 비교해서 말하기 능력 향상에 더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 또한 말하기 전 쓰기 활동이 하위 그룹 학습자들의 말하기 실력 발달에

더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습자들은 쓰기 활동이 말하기 학습에 필요하며 실력 향상에 효과적이라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처럼 말하기와 쓰기는 둘 다 출력(output) 관련 언어 기술(Larson & Jones, 1984)로 말하고자 하는 바를 청자 혹은 독자에게 전달되는 표현 기술이란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Weissberg, 2006). 따라서 말하기 수업에 쓰기가 병행되면 쓰기 활동을 통한 언어 형태의 반복적인 연습으로 말하기 실력에 도움이 되며(이윤나 & 윤현숙, 2010), 말하기 수업만 진행했을 때 할 수 없었던 자신의 발화를 점검하고 오류를 수정할 수 있고 자신의 언어 발달 단계를 인지할 수 있어 학습에 이점이 많다(유도형, 2014). 또한 Adams와 Ross-Feldman(2008)은 말하기 수업에 쓰기를 함께 연계하여 수업을 진행하면 언어의 형식에 초점을 맞출 수 있어 말하기의 정확성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다 하였다.

이처럼 영어 말하기 전 단계에 영어 쓰기 활동을 연계해 활용하면 학습자들이 말할 내용에 대해 미리 준비하고 수정하는 과정을 통해 자율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학습하고 발화의 오류를 미리 점검할 수 있고 언어 표출 기회가 더 증가하여 말하기 실력에 긍정적인 학습효과가 나타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영어 말하기 전 쓰기 활동이 영어 말하기 능력에 미칠 수 있는 긍정적인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관련 주제의 실증적 연구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주제나 방법 면에서 정보가 부족하고 따라서 이와 관련된 좀 더 다양하고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2. 소셜미디어 활용 영어 말하기 수업

최근 젊은 세대에게 주요 소통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학습은 현재 영어교육 현장에서 매우 주목받고 있는 학습방법이다. 소셜미디어는 인터넷을 매개로 하며 학습자들이 온라인 공동체의 한 구성원으로서 사회적 관계를 맺고 활발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어 의미 있는 언어 사용의 기회를 제공해주고 교실 밖 온라인 환경에서 언어 학습의 기회를 늘릴 수 있어 학습자들의 언어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진승희, 2021). 또한 소셜미디어 기반 학습은 다양한 소셜미디어 매체인 무료 공유 플랫폼을 활용하여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환경과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모바일 기기가 마련된다면 언제든 학습자들이 쉽게 접근하여 학습이 가능해 교육적으로 이용 가능성이 크다(신재한 & 서희석, 2012).

실제로 영어 수업에 다양한 소셜미디어 매체를 활용하고 그 교육적 효과를 살펴본 실증적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동안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주로 영어 쓰기 활동에 소셜미디어 매체를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최근 연구로 김병선(2020)은 영어 쓰기 수업에 유튜브 동영상을 활용한 댓글 달기 활동을 통한 쓰기 연습 및 소통의 경험을 제시하고 이러한 수업활동이 학습자들의 영어 쓰기 실력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그 결과 유튜브 활용 쓰기 학습이 학습자에게 매우 흥미로웠으며 자율적, 능동적, 적극적 학습에 도움이 되었고 자기주도 학습이 가능하고

모방과 사고하는 과정을 통해 영어 쓰기 능력이 향상되었음을 밝혔다. 이현경(2017)은 초등 영어 쓰기 수업에 클래스팅을 활용한 소셜미디어 기반 거꾸로 학습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소통의 극대화를 통한 소셜미디어 기반 쓰기 학습은 학습자들의 쓰기 유창성을 향상시키고 자신감과 같은 정의적 태도의 개선과 함께 자기주도성을 늘리는 등 영어 쓰기 학습에 긍정적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문은주와 김재경(2011)은 대학 영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영어 쓰기 학습에 소셜미디어 활동인 블로깅(blogging)을 활용한 연구를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웹 기반 블로깅과 스마트폰을 활용한 모바일 블로깅 학습 환경이 영어 글쓰기 실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비교 연구하였다. 연구결과, 수시로 학습자 간 상호작용이 가능한 모바일 블로깅이 웹 기반 블로깅 보다 영어 작문 실력의 질적인 측면 발달에 더 효과적이었음을 보여주었다. 반면 통사론적 측면에서는 두 학습방법 간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처럼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영어 학습 관련 연구가 현재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아직까지 영어 말하기 학습에 소셜미디어를 적용한 실험연구는 다른 언어 기능에 비해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최근 연구로 허선영과 손승희(2020)는 토익 스피킹 수업을 듣는 대학생 영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소셜미디어 매체인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을 활용한 말하기 수업을 실시하였다.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학습자들은 토익 스피킹의 기본 문답 유형을 연습하였고 연구결과, 이러한 소셜미디어 활용 말하기 수업 이 학습자들의 토익 스피킹 실력 향상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밝혔다. 이처럼 소셜미디어 매체를 활용한 학습은 학습자들의 영어 말하기 실력 향상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가능성이 기대되나 아직까지 소셜미디어 기반 영어 말하기 수업에 대한 연구가 아직 많이 이루어지지 않아 정보가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소셜미디어 환경의 장점이 학습자들의 영어 말하기 실력에 어떠한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지에 대해 좀 더 다양하고 다각적인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소셜미디어 활용 말하기 수업에서 말하기 전 쓰기 활동이 영어 말하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 알아보고자 한다. 기존의 말하기 전 쓰기 활동에 관련된 연구들은 모두 오프라인 교실 수업에서 쓰기와 말하기를 연계하여 학습한 연구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소셜미디어가 활용된 블렌디드 러닝 환경에서 실시된 말하기 수업에서도 말하기 전 단계 쓰기 활동이 학습자들의 영어 말하기 능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고찰해 보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동영상에 익숙한 Z세대들에게 인기있는 소셜미디어 활동인 브이로그(vlogs)를 기반으로 한 말하기 수업을 실시하여 이러한 블렌디드 러닝 환경에서 실시한 말하기 전 단계 쓰기 활동이 학습자들의 영어 말하기 능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학습자들의 인식 및 태도는 어떠한 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새로운 수업 방법의 교육적 가능성에 대해 탐구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질문은 다음과 같다.

1. 브이로그 활용 말하기 수업에서 말하기 전 쓰기 활동이 한국 EFL 대학생의 영어 말하기 실력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가?

2. 브이로그 활용 말하기 수업의 말하기 전 쓰기 활동에 대해 한국 EFL 대학생 학습자들의 인식과 태도는 어떠한가?

I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한국 대학 교양 영어 필수 수업의 두 분반에서 대면으로 실시되었다. 이 수업은 대학 신입생인 1학년을 대상으로 한 수업으로 영어 학습자들의 영어 의사소통능력을 증진시키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수업은 일주일에 두 번 두 시간씩 16주 동안 진행되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총 50명으로 실험집단 25명과 통제집단 25명으로 구성되었다. 대학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한 영어 실력 평가에서 중급(intermediate) 단계에 해당하는 학습자들로 구성되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모두 영어권 국가에서 공부하거나 산 경험이 없었다. 실험집단은 남학생 12명, 여학생 13명으로 구성되었고 한 학기 동안 브이로그 활동 말하기 수업에 말하기 전 쓰기 활동을 통합한 학습을 진행하였다. 통제집단은 남학생 10명, 여학생 15명으로 기존의 말하기 수업 방식으로 진행된 수업에 참여하였다.

2. 연구 설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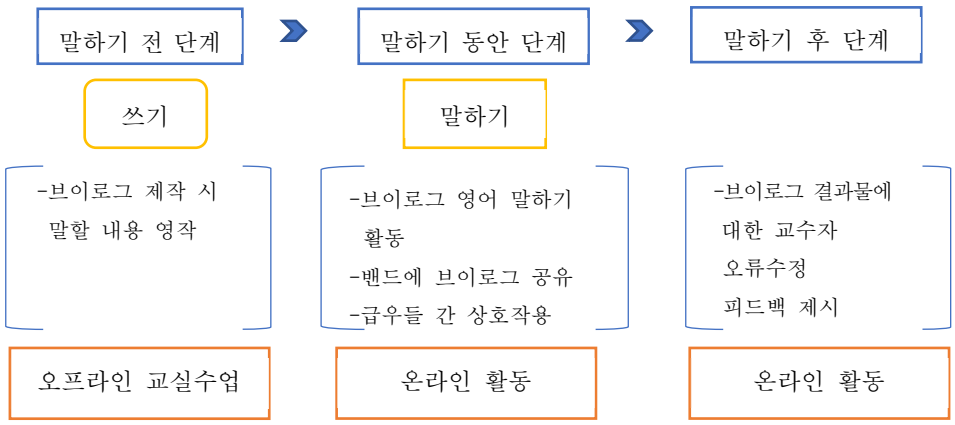
1) 실험집단: 브이로그 활용 말하기 수업에 말하기 전 쓰기 활동 연계 수업

본 연구의 실험집단은 브이로그 활용 말하기 수업에 말하기 전 쓰기 활동을 연계해 시도한 수업에 참여하였다. 실험집단은 기존 교양영어 수업인 통제집단과 동일하게 같은 교재를 사용해 같은 학습 내용인 영어 어휘, 쓰기, 읽기, 듣기 학습을 진행하였다. 두 집단의 차이점은 영어 말하기 활동에 있다. 실험집단은 소셜미디어 활동인 브이로그를 만들어 급우들과 온라인에서 공유하고 소통하는 말하기 수업 활동을 실시하였다. 브이로그는 비디오(video)와 블로그(blog)의 합성어로 동영상 형식의 블로그란 뜻을 가진다. 즉 브이로그는 텍스트와 이미지로 작성하던 기존 웹의 블로그가 영상화된 것이다. 연구 참여자들은 매주 자신이 원하는 주제, 즉 일기처럼 자신의 일상을 소소히 기록하는 것에서부터 자신의 관심사, 취미, 의견을 나누는 등을 자유롭게 영상으로 촬영하여 영어로 설명을 하는 브이로그를 만들어 온라인 수업 플랫폼인 네이버 밴드(BAND)에 브이로그를 업로드하여 급우들과 공유하고 상호작용하는 수업 활동을 실시하였다. 브이로그 활동은 주제나 양식에 제한을 두지 않고 영상 길이는 3-5분을 권고하나 자유롭게 촬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음 그림 1은 말하기 전 단계에 쓰기 활동을 통합해 실시한 브이로그 활용 말하기 교실의 수업활동 모형이다. 수업은 크게 세 단계로 1) 말하기 전 단계2) 말하기 동안

단계3) 말하기 후 단계로 진행되었다. 말하기 전 단계는 오프라인 면대면 수업에서 실시되었고 말하기 동안 단계와 말하기 후 단계는 온라인으로 실시된 블렌디드 러닝 학습으로 구성되었다. 첫째, 말하기 전 단계는 교실 수업에서 이뤄지며 말하기 관련 쓰기 활동이 연계되어 실시되었다. 학생들은 이 단계에서 자신이 원하는 브이로그 주제를 정하고 브이로그 제작 시 자신이 말할 내용을 영작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를 통해 영어로 말하고자 하는 생각이나 의견 등을 정리하여 말할 내용을 미리 계획하고 준비할 수 있었고 필요한 영어 어휘, 표현, 문법 등을 학습할 수 있었다. 둘째, 말하기 동안 단계는 학생들이 자신이 정한 말하기 주제에 대한 브이로그 영상을 제작하며 영어 말하기 활동을 실시하였다. 이 단계는 교실 밖 온라인으로 학습이 진행되었다. 학생들은 자유롭게 원하는 주제에 대해 영상을 촬영하며 직접 영어로 설명하거나 영상 촬영 후 편집본에 자신의 영어 음성을 입히는 방식으로 영어 말하기 활동을 실시하였다. 한 학기 동안 학생들은 매주 1개 씩 총 10개의 브이로그를 제작하여 밴드에 공유하였다. 매주 학생들은 서로의 브이로그를 시청하고 반응 및 댓글을 남기는 등 상호작용을 실시하였다. 셋째, 말하기 후 단계에서 교수자는 학생들이 수업 게시판 밴드에 올린 브이로그 말하기 활동을 확인하고 브이로그 결과물에 나타난 어휘, 문법, 발음 등의 영어 말하기 활동에 오류 수정 피드백(corrective feedback)을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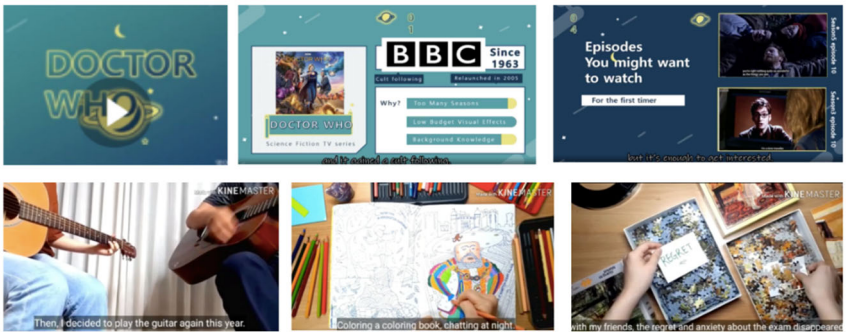
그림 1
브이로그 활용 말하기 수업에서 말하기 전 쓰기 활동 통합 실시 수업 모형



다음 그림 2는 브이로그 활용 말하기 전 쓰기 활동에 참여한 연구 참여자들이 만든 브이로그의 한 예시이다. 첫 줄의 한 학생은 자신이 좋아하는 미국 드라마 '*닥터 후 (Doctor Who)*'에 대해 설명하는 브이로그를 작성하였다. 영어로 드라마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함께 자신이 좋아하는 장면들을 설명하고 있다. 두번째 줄의 또 다른 학생은 자신의 취미 활동인 기타 연주하기, 색칠하기, 퍼즐하기 등을 영상으로 찍어 영어로 설명하는 브이로그를 만들어 공유하였다.

그림 2

실험집단 학생들의 브이로그 활동의 예시



2) 통제집단: 기존 영어 말하기 수업

통제집단은 본 연구가 이루어진 대학의 기존 교양영어 수업 방식으로 진행된 수업에 참여하였다. 통제집단은 실험집단과 마찬가지로 학생들의 영어 의사소통능력 발달을 위해 동일한 교재를 사용해 같은 내용의 영어 어휘, 듣기, 읽기, 쓰기 학습을 교실 수업에서 진행하였다. 그러나 통제집단의 말하기 활동은 교실 수업 내에서 교재를 기반으로 진행되었다. 교재에 제시된 다양한 말하기 활동(예, 상황별 역할극, 인터뷰, 게임, 이야기 재구성 등) 및 프레젠테이션이 실시되었다. 통제집단은 말하기 활동 시 전 단계에 영어 쓰기 활동이 연계되어 이루어지지 않았다. 수업 내 말하기 과업은 짝 활동 혹은 모둠 활동을 통해 수행되었다. 교수자는 교실 수업에서 통제집단 학생들의 말하기 수행 활동을 관찰하고 발표를 시켜 어휘, 문법, 발음 등의 오류에 수정 피드백을 주었다.

3. 연구 도구

1) 영어 말하기 능력 검사

본 연구에서는 실험 후 연구 참여자들의 말하기 능력에 변화가 생겼는지 측정하기 위해 사전 · 사후 말하기 평가를 실시하였다. 말하기 능력 평가를 위해 '질문에 답하기(예, When did you last go shopping? , and how often do you go?)' 와 '사진보고 묘사하기(예, 횡단보도 건너는 엄마와 어린 딸 사진, 그로서리 쇼핑하는 여자 사진 등)' 유형을 적용하여 두 가지 과업으로 말하기 평가를 실시하였다. 사전 · 사후 평가 문제 유형은 동일하였다. 사전 · 사후 말하기 평가는 Brown(2004)이 제시한 말하기 평가 척도를 적용하여 총체적 채점과 분석적 채점을 실시하였다. 분석적 채점 척도는 1) 어휘 2) 문법 3) 발음 4) 이해도 5) 유창성 6) 과업으로 구성되었다. 채점은 각 영역별 1-5점의 5단계 척도를 사용하였고 총 점수는 6-30점이다. 연구 참여자들의 사전 · 사

후 영어 말하기 평가는 녹음되었고 채점은 미국인 원어민 강사 2명에 의해 실시되었다. 두 채점자는 채점 전 말하기 평가 방법에 대해 훈련을 받고 자신의 채점 방식에 대해 검토하는 시간을 가졌다. 본 연구의 두 평가자 간 신뢰도 검증 결과, 실험집단의 사전 검사는 .95, 사후 검사는 .90으로 나타났고 통제집단의 사전 검사는 .91, 사후검사는 .87로 나타나 두 채점자 간의 높은 신뢰도가 나타났다.

2) 학습자 인식 및 태도 설문조사

본 연구는 브이로그 활용 말하기 수업에서 실시한 말하기 전 쓰기 활동에 대한 연구 참여자들의 인식 및 태도를 살펴보기 위해 실험이 끝난 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문항은 고윤힐(2017)의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조사를 본 연구에 맞게 수정 후 활용하였다. 설문내용은 브이로그 활용 말하기 수업에서 말하기 전 단계 쓰기 활동이 영어 말하기 학습에 유용하였는 지와 함께 정의적 측면인 동기, 흥미, 자신감, 불안감 등을 물어보는 질문으로 구성되었고 자세한 설문문항은 표 4에서 살펴볼 수 있다. 설문문항은 총 9개로 5점 리커트 척도(1 = 매우 그렇지 않다, 2 = 그렇지 않다, 3 = 보통이다, 4 = 그렇다, 5 = 매우 그렇다)로 구성하여 학습자들의 인식 및 태도를 측정하였다. 추가적으로 두 가지 주관식 문항인 '1. 브이로그 활용 말하기 수업에서 실시한 말하기 전 쓰기 활동이 영어 말하기 학습에 어떠한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까?'와 '2. 브이로그 활용 말하기 수업에서 실시한 말하기 전 쓰기 활동의 단점은 무엇입니까? 개선하거나 보완해야할 점이 있습니까?'를 통해 학습자들이 학습경험에 대해 좀 더 심층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4. 자료 분석

본 연구의 자료는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에 참여한 연구 참여자들의 영어 말하기 능력 변화를 측정한 1) 각 집단 사전 · 사후 말하기 평가 결과와 실험집단 학습자들의 인식 및 태도를 측정한 2) 사후 설문조사 결과이다. 본 연구실험의 첫 주에 사전 말하기 평가, 마지막 주에 사후 말하기 평가와 사후 설문조사가 실시되었다. 첫째, 본 연구에 참여 전 두 집단 간의 말하기 실력에 차이가 없는지 판단하기 위해 두 집단의 사전 말하기 평가 결과를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여 비교하여 두 집단의 동질성을 확인하였다. 그 후 각 집단이 본 연구에 참여 후 말하기 실력에 변화가 생겼는지 측정하기 위해 각 집단의 사전 말하기 평가와 사후 말하기 평가 결과를 대응표본 *t* -검정을 실시해 분석하였다. 또한 두 집단 중 어느 집단이 말하기 실력 향상에 더 효과적으로 나타났는지 확인하기 위해 두 집단의 사후 말하기 평가 결과를 독립표본 *t* -검정을 실시하여 비교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분석적 채점 척도로 측정한 말하기 능력의 각 6가지 평가항목별(어휘, 문법, 발음, 유창성, 이해도, 과업)로 대응표본 *t* -검정을 실시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소셜미디어 활용 말하기 수업의 말하기 전 쓰기 통합 활동이 연구 참여자들의 말하기 실력 향상에 평가항목별로 어떠한 영향

을 끼쳤는지 상세히 분석해 제시하고자 하였다. 둘째, 실험집단 학습자 인식과 태도를 조사한 사후 설문조사 결과를 평균,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추가적으로 살펴본 주관식 설문 2개의 결과는 질적 분석 코딩을 통해 본 연구에 대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주제(theme)를 도출하여 그 의미를 해석하였다.

Ⅳ. 연구결과 및 논의

1. 영어 말하기 능력에 미치는 영향

1) 전반적인 영어 말하기 능력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의 첫 번째 연구질문은 브이로그 활용 말하기 수업의 말하기 전 쓰기 활동이 한국 EFL 대학생의 영어 말하기 실력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살펴보는 것이었다. 본 연구는 우선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이 실험 전 말하기 능력에 차이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두 집단의 사전 검사 결과를 독립표본 t-검정을 통해 비교분석하였다. 그 결과,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사이에 유의한 차이($t(48) = 1.62$, $p = .111$)가 나타나지 않아 두 집단 간 동질성이 입증되었다.

다음으로 실험 후 본 연구에 참여한 두 집단의 말하기 능력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진단하기 위해 말하기 능력 사전 · 사후 검사를 대응표본 t-검정을 통해 분석하였고 그 결과는 표 1에 나타냈다.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통제집단의 사후검사 평균점수($M = 15.40$, $SD = 2.04$)는 사전검사 평균점수($M = 13.76$, $SD = 2.60$) 보다 1.64 증가하였고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t(24) = -4.15$, $p < .001$). 이는 기존 교양영어 수업이 학습자들의 영어 말하기 실력에 긍정적인 향상을 가져왔음을 알 수 있다. 비슷한 결과로 실험집단의 사후검사 평균점수($M = 18.40$, $SD = 2.10$)는 사전검사 평균점수(M=14.88, $SD = 2.26$)보다 3.52 증가하였고 이는 통제집단의 평균차인 1.64보다 크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두 사전 · 사후 검사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t(24) = -8.98$, $p < .001$). 즉, 브이로그 활용 말하기 수업에서 말하기 전 쓰기 활동이 학생들의 영어 말하기 능력 발달에 효과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두 수업 모두 한 학기 동안 의사소통능력 발달을 수업 목표로 말하기 과업을 진행한 수업이었기에 학생들의 말하기 실력 향상에 모두 효과적으로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표 1
각 집단 영어 말하기 능력 사전·사후 검사 결과 분석

집단	평가	*N*	*M*	*SD*	*t*	*df*	*p*
실험집단	사전	25	14.88	2.26	-8.98 ***	24	.000
	사후	25	18.40	2.10			
통제집단	사전	25	13.76	2.60	-4.15 ***	24	.000
	사후	25	15.40	2.04			

***$p < .001$

다음으로 두 집단 중 어느 방식의 수업이 연구 참여자들의 영어 말하기 능력 발달에 더 효과적으로 나타났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두 집단의 말하기 능력 사후검사 결과를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여 비교분석 하였고 그 결과는 표 2에 나타냈다. 표 2에서 알 수 있듯이 실험집단의 사후검사 평균점수는 18.40, 통제집단의 평균점수는 15.40로 나타났고 두 집단 간 사후검사 평균점수 차이는 유의미했다($t(48) = 5.12$, $p < .001$). 이러한 결과는 브이로그 활용 수업의 말하기 전 쓰기 활동 수업이 기존의 교양영어 수업보다 학생들의 영어 말하기 실력 발달에 효과적인 방법임을 나타낸 것이다. 이처럼 말하기 전 쓰기 활동 수업이 학생들의 영어 말하기 실력 향상에 기존의 수업보다 효과적으로 나타난 긍정적인 결과는 이전의 연구 결과들과 일치하고 있다 (고윤힐, 2017; 김지선, 2014; 이윤나 & 윤현숙, 2010). 본 연구는 기존의 오프라인 수업에서 진행된 연구들과 다르게 브이로그를 통해 블렌디드 러닝 학습 환경에서 진행한 수업에서도 말하기 전 단계 쓰기 활동이 학습자들의 영어 말하기 실력 향상에 긍정적인 결과를 나타내 의미 있는 연구 결과를 제시하였다.

표 2
두 집단 간 영어 말하기 능력 사후 검사 결과 비교 분석

구분	집단	*N*	*M*	*SD*	*t*	*df*	*p*
사후 검사	실험집단	25	18.40	2.10	5.12***	48	.000
	통제집단	25	15.40	2.04			

***$p < .001$

2) 평가항목별 영어 말하기 능력에 미치는 영향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브이로그 활용 말하기 전 쓰기 활동이 학생들의 영어 말하기 발달에 있어 평가 항목별로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 좀 더 상세히 살펴보고자 하였다. 다음과 같이 1) 문법 2) 어휘 3) 이해도 4) 유창성 5) 발음 6) 과업의 여섯 가지 평가 항목으로 분석하였다. 실험집단의 사전 · 사후검사 결과를 각각 평가 항목별로 대응표본 *t*-검정을 실시하여 분석하였고 그 결과는 표 3에 나타내었다.

표 3
실험집단 평가항목별 영어 말하기 능력 변화 분석

평가항목	평가	*M*	*SD*	*t*	*df*	*p*
문법	사전검사	2.48	.71	-4.30***	24	.000
	사후검사	3.04	.61			
어휘	사전검사	3.04	.45	-3.67**	24	.001
	사후검사	3.40	.58			
이해도	사전검사	2.96	.35	-2.59*	24	.016
	사후검사	3.24	.44			
유창성	사전검사	1.96	.61	-8.43***	24	.000
	사후검사	3.04	.61			
발음	사전검사	1.84	.62	-6.00	24	.000

	사후검사	2.44	.58	***		
과업	사전검사	2.60	.50	-5.02	24	.000
	사후검사	3.24	.52	***		

*p < .05, **p < .01, ***p < .001

표 3에서 알 수 있듯이, 모든 평가 항목인 문법(t(24) = -4.30, p < .001), 어휘(t(24) = -3.67, p < .01), 이해도(t(24) = -2.59, p < .05), 유창성(t(24) = -8.43, p < .001), 발음(t(24) = -6.00, p < .001), 과업(t(24) = -5.02, p < .001)에서 유의한 향상이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유창성 항목에서 가장 발달이 크게 이뤄진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유창성 항목의 사후검사 평균점수는 3.04로 사전검사 평균점수 1.96보다 1.08 점수 차로 증가하였고 이는 여섯 가지 항목 중 가장 높은 점수 차를 보이는 항목이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본 연구의 실험이었던 브이로그 활용 말하기 전 쓰기 활동이 학생들의 영어 말하기 실력 관련하여 모든 평가항목(어휘, 문법, 발음, 유창성, 이해도, 과업)에서 긍정적인 향상을 이룬 효과적인 학습방법이라는 점을 알 수 있었고 특히, 유창성 항목에서 효과적인 발달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기존의 이윤나와 윤현숙(2010)의 연구에서도 이와 비슷한 결과로 영어 말하기 전 쓰기 활동이 전체적인 말하기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었고 말하기 능력 중 유창성과 정확성에 더 큰 향상이 나타난 바 있다. 이처럼 본 연구의 브이로그 기반 수업의 말하기 전 쓰기 활동은 학습자들이 미리 말할 내용을 계획하고 영작하고 수정하며 준비할 수 있었고 또 충분히 영어 말하기 연습 후 영어 브이로그 말하기 활동에 참여한 것이 유창성 발달에 효과적이었으며 전반적인 말하기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된 것으로 보인다.

2. 학습자 인식 및 태도

본 연구의 두 번째 연구질문은 브이로그 활용 수업의 말하기 전 쓰기 활동에 대해 한국 EFL 대학생 학습자들의 인식과 태도는 어떠한지 살펴보는 것이었다. 다음 표 4는 본 연구의 마지막 주에 실험집단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표 4
학습자 인식 및 태도 관련 설문조사 결과

	문항내용	*M*	*SD*
1	영어 학습 중 말하기 실력 향상이 중요하다.	4.64	.49
2	말하기 전 쓰기 활동이 말하기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	4.52	.65
3	본 수업 후 영어 말하기에 관심이 더 생겼다.	4.04	.45
4	본 수업 후 자신감이 더 생겼다.	4.36	.64
5	본 수업 후 영어 말하기 실력을 늘리고자 하는 동기가 더 커졌다.	4.40	.65
6	본 수업 후 원어민과 대화하는 것에 흥미가 생겼다.	4.24	.72
7	본 수업 후 영어 말하기에 대한 불안감이 낮아졌다.	4.28	.61
8	쓰기 연습을 잘 활용하면 말하기 실력이 향상될 것이다.	4.44	.77
9	전반적으로 본 수업은 내 영어 말하기 실력 발달에 유용하였다.	4.72	.46
전체		4.40	.60

표 4에 나타나듯이 본 연구에 참여한 학습자들은 전반적으로 브이로그 활용 수업에서 실시한 말하기 전 쓰기 활동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와 인식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the total *M* = 4.40). 가장 높은 평균 점수를 받은 항목은 9번 항목으로 '전반적으로 본 수업은 내 영어 말하기 실력 발달에 유용하였다(*M* = 4.72)' 이다. 학습자들은 본 연구 실험인 브이로그 활동에 영어 말하기 전 쓰기 활동을 실시한 것이 자신들의 영어 말하기 실력 발달에 도움이 되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다음으로 높은 평균점수를 나타낸 항목은 1번으로 '영어 학습 중 말하기 실력 향상이 중요하다(*M* = 4.64)' 이다. 학습자들은 영어 학습에 있어 말하기 실력 발달이 중요하며 이에 대해 잘 인지하고 동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다음으로 말하기 전 쓰기 활동과 관련된 설문 문항 2번 '말하기 전 쓰기 활동이 말하기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M* = 4.52)' 와 좀 더 구체적으로 물어본 문항인 '8. 쓰기 연습을 잘 활용하면 말하기 실력이 향상될 것이다(*M* = 4.44)' 에서도 높은 평균점수가 나타났고 이는 학습자들이 자신들의 영어 말하기 학습에서 영작 활동이 유용하였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의적 측면을 살펴본 설문문항에서도 학습자들은 학습 동기(문항 5, *M* = 4.40), 자신감(문항 4, *M* = 4.36), 불안감 감소(문항 7, *M* = 4.28), 흥미(문항 6, *M* = 4.24)와 관심(문항 3, *M* = 4.04)에서 긍정적인 인식과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학습자들이 본 연구 실험이었던 브이로그 활용 영어 말하기 수업에서 쓰기 활동이 영어 말하기 학습에 유용하였다고 생각하였고 말하기 향상에 효과가 있다고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정의적 요인인 동기, 자신감, 흥미, 불안감 측면에도 긍정적인 향상이 있었음을 나타냈다. 새로운 방식의 학습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학습자의 긍정적인 인식과 태도가 수반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점에서 볼 때 본 연구의 브이로그 활용 영어 말하기 전 쓰기 활동 수업은 학습자들이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있고 앞으로도 긍정적인 학습효과를 기대해볼 수 있는 수업방법임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설문조사 주관식 문항의 답변을 질적 방법 코딩을 통해 도출된 본 연구의 장점과 단점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브이로그 활용 수업의 영어 말하기 전 쓰기 활동의 장점으로 다음과 같이 1) 자신감 상승과 2) 말하기 불안감 감소 3) 영어 말하기 연습 기회 증가의 주제가 발견되었다. 첫째로, 여러 학습자들이 본 연구의 브이로그 활용 영어 말하기 전 쓰기 활동을 통해 자신감이 증가했음을 이야기하였다. 다음 [1], [2], [3] 은 학생들의 답변을 발췌한 내용이다.

> [1] 갑자기 영어를 하려고 하면 뭘 말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실수할까봐 두려웠는 데 미리 영작을 하고 내가 뭘 말할지에 대해 준비할 수 있으니 좀 더 자신감이 생기고 말할 때 당황하지 않고 할 수 있었습니다(신 oo, 여).

> [2] 쓰기 활동을 하니 내 영어가 좀 더 체계적으로 될 수 있었고 틀리지 않고 자신감 있게 영어 말하기를 할 수 있다는 점(윤 oo, 남).

[3] 내 문법이나 단어도 확인할 수 있고 영어로 말할 때 여러 번 다시 할 수 있어 확실히 자신감이 생겼습니다(주 oo, 여).

위의 학생들 답변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브이로그 활용 영어 말하기 전 쓰기 활동은 학생들이 미리 영어로 할 말을 준비하고 계획할 수 있어 실수에 대한 두려움 없이 좀 더 자신감 있게 영어를 말하기 활동에 임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많은 학생들이 영어 사용에 대한 말하기 불안감 없이 영어 말하기 활동을 할 수 있었다고 언급하였다. 다음 [4], [5] 는 학생들의 응답에서 발췌한 내용이다.

[4] 제가 영어를 잘 못해서 자신감도 부족하고 두려움이 많았는데 이번 수업에서는 틀릴까봐 불안하지도 않고 제가 노력한 만큼 말할 수 있어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황 oo, 여).

[5] 미리 영작을 해서 준비할 수 있다는 점과 브이로그로 직접 말하는 게 아니여서 떨지 않고 편하게 영어로 말할 수 있어 좋았음(박 oo, 남,).

위의 학생들 답변에 나타난 것처럼, 본 연구의 학생들은 말하기 전 쓰기 활동을 통해 미리 말하기 내용을 준비할 수 있어 기존의 말하기 불안감, 두려움 등의 감소에 도움이 되었고 특히 브이로그 활동은 직접 면대면 말하기 학습이 아니기 때문에 학생들이 좀 더 편안하게 말하기 학습 활동에 임할 수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브이로그 활용 말하기 전 쓰기 활동은 학생들에게 영어 말하기 연습 기회를 충분히 줄 수 있는 장점이 있는 학습방법임을 알 수 있었다. 다음 [6], [7] 은 학생들의 설문응답에서 발췌한 내용이다.

[6] 이 수업에서 영어를 제일 많이 사용했던 것 같아요. 브이로그로 항상 내가 직접 말해야하니까 좋았고 부담도 없었고 재밌었어요(신 oo, 여).

[7] 매주 브이로그로 내 일상을 기록하니 재밌었고 의미 있었던 점이 좋았고 영어 사용이 늘었고 실력에 많이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주 oo, 여).

위의 학생들 답변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본 연구의 브이로그 기반 영어 말하기 전 쓰기 활동은 학생들에게 영어 사용 기회를 늘리고 충분히 말하기 연습을 할 수 있게 하여 말하기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유용한 학습방법임을 알 수 있었다.

반면, 브이로그 활용 영어 말하기 전 쓰기 활동의 단점과 관련된 주제로 영어 글쓰기에 대한 피드백 부족이 제시되었다. 다음 [8]은 한 학생 응답에서 발췌한 내용이다.

[8] 영어가 부족하다보니 글 쓸 때 내 문법이 맞는 지도 모르겠고 번역기에 돌려보기도 했는데 내 문장이 맞는지 확인하기 힘들어 이런 거 관련 피드백을 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윤 oo, 남).

위의 학생 답변에 나타나듯이, 학생들이 영어 글쓰기에서 문법, 표현 등의 작성에 어려움을 느꼈고 영작문 과정에서 동료나 교수자의 피드백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마지막 말하기 후 단계에서 브이로그 영상 결과물에 나타난 학생들의 말하기 내용을 토대로 발음, 문법, 어휘, 표현 등의 오류 수정 피드백을 제시하였는데 말하기 전 단계인 영어 쓰기 과정에서도 이러한 피드백 과정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향후 관련 연구에서는 영어 말하기 전 단계의 쓰기 과정에서 동료나 교사의 피드백이 제시되어 수업이 이루어진다면 학습자들이 좀 더 정확한 어휘, 문법, 표현을 배우고 익힐 수 있어 말하기 학습이 더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V. 결론

결론적으로 본 연구의 브이로그 활용 영어 말하기 수업에서 말하기 전 단계에 쓰기 활동을 연계한 수업은 말하기 실력과 관련하여 문법, 어휘, 발음, 유창성, 이해도, 과업 등의 모든 말하기 평가 항목에서 발달이 이루어졌고 유창성 항목 발달에 가장 효과적으로 나타났다. 기존의 전통적인 영어 수업과 비교하여도 말하기 전 쓰기 활동을 실시한 브이로그 활용 수업이 학습자들의 영어 말하기 실력 발달에 더 효과적인 방법임을 입증하였다. 특히 학습자들에게 영어 말하기 연습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고 말하기에 대한 자신감을 늘리고 불안감을 해소시키는 장점을 가지며 영어 말하기 실력 향상에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효과적인 말하기 수업 방법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이러한 방식의 수업에 대해 학습자들은 전반적으로 긍정적 인식과 태도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쓰기 활동이 영어 말하기 학습에 장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연계, 통합하여 말하기 학습을 실시한 연구는 그동안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연구결과는 영어 말하기 수업에서 말하기 전 단계에 쓰기 활동을 연계하여 실시하면 학습자들이 자신이 영어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미리 준비하는 과정에서 모르거나 부족한 부분을 자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고 말하기 전 연습을 충분히 할 수 있어 말하기 능력 향상에 매우 유용함을 밝혔다. 특히 본 연구는 오프라인 교실 수업에서 이뤄진 기존 연구들과 다르게 브이로그 활용을 통한 블렌디드 러닝 학습 환경에서도 이러한 말하기 전 쓰기 활동이 학습자들의 영어 말하기 실력 향상에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음을 보여줘 의미있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긍정적인 결과를 통해 앞으로 영어 말하기 수업에 쓰기 활동을 통합해 학습하는 관련 연구가 좀 더 다각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연구가 가지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브이로그와 같이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말하기 수업에서 말하기 전 쓰기 활동을 연계하여 활용하는 것은 효과적인 영어 말하기 학습방법으로 고려될 수 있겠다. 영어 말하기 전 단계의 쓰기 활동은 학습자들이 문법, 어휘, 표현 등 자신이 모르거나 부족한 부분을 스스로 점검하며 필요한 부분을 학습할 수 있고 영어 말하기 전 충분한 영어 말하기 연습 기회를 가질 수 있어

영어 말하기 능력 향상에 효과적이었다. 또한 쓰기를 통해 미리 말할 내용을 준비하면 학습자들이 말하기에 대한 불안감이 적어지고 자신감이 생기는 등 정의적 영역에도 긍정적인 향상이 이루어져 말하기 실력 향상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특히 브이로그를 통한 온라인 환경의 활용은 교실 면대면의 즉각적인 영어 말하기가 아닌 온라인에서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준비된 상태에서 영어 말하기를 할 수 있었고 이러한 말하기 학습은 영어 실력과 자신감이 부족했던 학습자들에게 불안감 없이 말하기 과업에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는 수업 환경을 제시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영어 말하기 수업에서 말하기 전 단계에 쓰기 활동을 연계하여 실시할 시에 학습자들의 영작 단계에 동료나 교수자 피드백 제시가 고려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 학습자들이 영작 시 어려움을 느끼고 자신들이 쓴 어휘, 문법, 표현 등에 대해 오류가 없는지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일이 있었다. 영작 과정에 동료나 교수자가 피드백을 제시하여 학습자들이 말하기 전 단계에서 정확한 어휘, 문법, 표현을 익히고 영어 말하기를 하게 된다면 좀 더 효과적인 영어 말하기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통제집단이 말하기 전 쓰기 활동이 전혀 없는 수업을 받은 것으로 후속연구에서는 말하기 전 쓰기 활동을 실시한 통제집단과 브이로그 활용 말하기 전 쓰기 활동을 한 실험집단을 비교하는 연구가 필요하겠다. 이를 통해 브이로그 활용 말하기 수업에서 실시한 말하기 전 단계의 쓰기 활동의 효과성에 대해 좀 더 타당한 결과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하겠다.

참고문헌

강민지. (2013). *중학교 영어 말하기와 쓰기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과 그 평가 실태*. 미출간 석사학위논문. 충남대학교, 대전.

고윤힐. (2017). *영어 말하기 수업에서 쓰기 활동과 녹음 활동이 말하기 능력에 미치는 효과와 학습자들의 인식에 대한 연구*. 미출간 박사학위논문. 충남대학교, 대전.

김병선. (2020). 대학생들의 영어 쓰기 경험에 관한 연구: 유튜브 댓글 작성을 중심으로. *영어영문학, 25*(3), 187-207.

김지선. (2014). 영어 말하기 전 쓰기활동이 한국 대학생 EFL 학습자의 말하기 능력과 불안에 미치는 영향. *영어어문교육, 20*(1), 329-356.

문은주, 김재경. (2011). 웹 기반 및 모바일 블로깅을 활용한 웹 환경에서의 쓰기 효과. *멀티미디어 언어교육, 14*(3), 225-243.

신수정. (2018). 대화식 저널쓰기가 대학생들의 쓰기능력과 정의적 영역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인식 연구. *영어어문교육, 24*(4), 109-126.

신재한, 서희석. (2012). *소셜미디어 활용 수업 스마트하게 하기.* 서울: 교육과학사.

안수연. (2002). *대화식 일지 쓰기가 중학생들의 영어 쓰기 및 말하기 능력과 정의적 측면에 미치는 영향.* 미출간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서울.

유도형. (2014). 말하기, 쓰기 선출력(output-first) 활동의 영어교육현장 실효성 연구. *영상영어교육, 15*(1), 155-174.

이윤나, 윤현숙. (2010). 영어 말하기 전 쓰기 활동이 대학생의 말하기 수행에 미치는 영향. *영어교육연구, 22*(3), 143-166.

이현경. (2017). *소셜미디어기반 거꾸로 학습 활용 초등영어 쓰기 수업의 효과: 목표 사전 달성자를 대상으로.* 미출간 석사학위논문. 서울교육대학교, 서울.

이혜수. (2017). *과업중심 수업이 초등영어 말하기와 쓰기 성취도 및 정의적 영역에 미치는 영향.* 미출간 석사학위논문. 서울교육대학교, 서울.

장미화, 이화자. (2019). 협동학습 기반 다시쓰기 활동이 대학생들의 쓰기와 말하기에 미치는 영향. *영어영문학21, 32*(4), 179-200.

정양수. (2005). CMC기반의 언어학습 환경에서 행해진 영어 쓰기활동이 영어 말하기 능력에 미치는 효과. *언어연구, 21*(2), 113-132.

진승희. (2021). 브이로그를 활용한 영어 말하기 수업이 한국 대학 EFL 학습자의 자기주도학습 능력, 학습 흥미, 말하기 실력에 미치는 효과. *멀티미디어 언어교육, 24*(3), 157-186.

허선영, 손승희. (2020). 폐쇄형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토익 말하기 활동의 효과.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0*(1), 923-937.

황성근. (2009). 말하기 교육에서 글쓰기의 효과와 연계방안. *작문연구, 8*, 111-137.

Adams, R., & Ross-Feldman, L. (2008). Does writing influence learner attention to form? In D. Belcher & A. Hirvela (Eds.), *The oral-literate connection: Perspectives on L2 speaking, writing, and other media interactions* (pp. 243–266). Ann Arbor, MI: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Brown, H. D. (2004). *Language assessment: Principles and classroom practices*. New York: Longman.

Cumming, A. (1990). Metalinguistic and ideational thinking in second language composing. *Written Communication, 7(*4), 482-511.

Dabiri, D., & Gilakjani, A. P. (2019). Impact of pre-speaking activities on Iranian intermediate EFL learners' oral performance. *International Journal of Research in English Education, 4*(2), 89-104.

Gaillard, C. (2013). *The effects of pre-speaking planning on students' performance during speaking tasks*. Unpublished master thesis. Brigham Young University, Utah.

Larson, J. L., & Jones, R. L. (1984). Proficiency testing for the other language modalities. In T. V. Higgs (Ed.), *Teaching for proficiency, the organizing principle* (pp. 133-138).

Lincolnwood, IL: National.

Skardal, I. (2015). *Using pre-speaking activities to increase pupils' oral confidence in English*. Unpublished master's thesis. UiT The Arctic University of Norway, Tromsø, Norway.

Weissberg, R. (2006). *Connecting speaking & writing in second language writing instruction.* Ann Arbor, MI: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예시언어(Example in): English
적용가능 언어(Applicable Language): English
적용가능 수준(Applicable Levels): Tertiary

진승희(연구교수)
이화여자대학교 인문과학대학 영미학융합연구소
03760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이화여대길 52
Email: seung2jin@ewha.ac.kr

Received in April 25 , 2022
Reviewed in May 30, 2022
Revised version received in June 7, 2022